

청소년 교정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 “길위학교” 걷기 교정프로그램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Youth Correction Program Participation
-Walking Correction Program of “Gilwi School”-

김원세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Won-Se Kim(samsa3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보호 청소년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으로써 일명 “길위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행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이다. 동행자는 교정프로그램 참가 청소년과 함께 걷는 사람을 일컫는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6회가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보고서에 수록된 동행자 소감문 46편의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131개의 의미단위를 7개의 하위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다시 최종 4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구성요소를 “보호 청소년을 이해”, “동행자 시선의 긍정적 변화”, “걷기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 “프로그램 효과성과 동행자의 중요성”으로 명명하였다.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보호 청소년 전문 동행자 양성, 교정프로그램 기간과 횟수와 참가인원 확대 등의 보호청소년 관련 교정프로그램 발전 방안 모색에 기대한다.

■ 중심어 : 동행자 | 교정프로그램 | 길위학교 | 내용분석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teenagers who are needed a correction program called “Gillwe School”. This program has a companion who is called a guide and the guide leads them correction program while walking with teenagers. This report has represented 131 semantic units, 7 sub-constituencies and 4components through analysis of 46 cases of the companion participants stories since 2014 and clearly, defined as the final four regions (“Understanding of protection youth”, “Positive change of companion’s gaze”, “Doubts the walking program”, “Program’s effectiveness and Companion’s importance,”.) Through a series of studies, I look forward to finding ways to develop program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correctional professionals, such as training professional counselors for protection youth, duration and number of correction programs, and expand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 keyword : Companion | Correctional Program | Gillwe School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I. 서론

청소년의 개념은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유엔(United Nation)은 관련 정책(프로그램)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은 15세~24세로 규정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9~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에서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범죄”(Crime)란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통 개인에 의해 행해지고 특히 형법에 금지되며 국가의 대표자들에 의해 억제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총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범죄 역시도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구성요건에 따라 범죄 행위의 성립유무가 결정된다[1][2]. 그러나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행위는 성립요건 중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행위는 범죄행위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법률 위반행위 및 교정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거나 형법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을 소년법상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를 아직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보고 성인과 구별된 특별 처우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2-4].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성인 못지않게 강력·지능화[5]성범죄, 폭력, 협박 및 상해 등 나쁜 어른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범죄라는 일을 청소년들이 행하고 있으며 점점 흉폭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6].

또한, 청소년 범죄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아 시민들은 청소년범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며, 많은 성인범죄자가 대부분 청소년기의 범죄와 비행의 연속선상에 있어 청소년 비행을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7].

2012년부터 2017년 7월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가 나왔으며, 매년 꾸준히 9.7%에서 12.3%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8].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다.

비행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은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받는 교정프로그램은 생활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종교생활, 사회화, 교정상담 등이다.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것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기이해훈련, 심리검사, 장애아동돕기, 개별상담, 재범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되는데 위탁기관 모두 실시하지는 않으며 위탁기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며, 대상자의 수준이나 개별성에 대한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9].

또한 전문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한 실정으로 서비스 효과성도 문제가 되며, 대상 청소년들의 환경을 고려할 때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문성과 사례별 적용이 필요하다[10].

이에 2014년부터 대전가정법원과 대전나눔의집에서 프랑스의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쇠이유”(Seuil)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한국형 쇠이유 일명 ‘길위학교’[11]라는 유범 청소년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이다. 2014년 로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다 2015년부터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의 제안으로 ‘길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보호청소년 1명에 동행자 1명이 전담되어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매 순간 함께 한다는 것과 집단프로그램 또는 교육보다는 걷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깨우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걷기 교정프로그램 진행은 5년간 6회 진행 되었으며, 남자는 5회 여자는 1회 진행되었다. 1년에 1회 정도 진행되었기에 동행자의 경험을 축적하거나 전수에는 어

1) 프랑스에서 ‘쇠이유’(우리말로 문턱이란 뜻) 프로그램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3개월 동안 2,000km를 걸으면 석방하는 교정 프로그램

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행자들의 경험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행자들의 걷기 교정프로그램 참가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그램 동행자들의 소감문 46편을 중심으로 “길위학교”라는 걷기 교정프로그램의[12] 의의와 유용성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행자들의 경험을 심층적 이해와 걷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길위학교” 걷기 프로그램

1. 보호소년 교정 프로그램 개념

보호소년(保護少年)[13]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을 말한다. 또한 이들 보호소년들은 소년법 제1조 소년법의 목적과 같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하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소년들에게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15].

보호소년 위탁시설의 운영특성을 분석한 결과, 위탁시설은 보호·교정·교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에 있어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관리체계가 엄격하고 폐쇄적이어서 시설과 보호소년과의 신뢰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고시와 직업훈련 등은 공급자 중심의 편리를 중시한 나머지 보호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다. 물론 위탁시설이 보호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낮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시설 내에서 실시하다보니 지역사회 보호의 실현과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한다 [16].

김근식(1996)에 의하면 교정이란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비합법적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으로, 처벌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체계(system)와 프로그램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이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과 교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처벌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응보적 반응으로 단순한 일과성의 성격인데 반하여, 교정은 활동을 통해 행동적인 결과를 얻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으로 구별되며, 교정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과 성인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내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치료·보호·교정적 프로그램을 말한다[14].

이에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의 핵심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4][17]. 따라서 교정프로그램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사례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행개선을 돕고 재범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걷기 경험과 청소년 교정

걷기 또는 보행은 달리기보다는 느린 걸음걸이다 [18]. 걷기의 사전적 의미는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때면서 나아가는 운동이며, 엔도르핀의 분비를 대폭 증가시켜주고, 기분을 자연스럽게 전환시켜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19]. 또한 기분이 좋아지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발생하는 두통 역시 걷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20].

자아발견 및 인격수양의 방법으로서 걷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Coelho(2006)와 Boers(2008)의 순례여행을 들 수 있으며, 카미노 데 산티아고 800km를 31일간 걸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관찰되고 느껴진 사람간의 관계 변화에 주목했다. 첫째, 힘든 길을 오래 걷다 보니 누구든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이가 자기 몸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순례자들은 타인의 부상이나 질환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셋째, 서로에게 정겹고 너그럽다는 것이다.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

대[20].

Boers(2008)[21]의 체험에서 보았듯이,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그 길이 힘들면 힘들 수록 겸허해짐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여백이 넓혀지고 같은 곳을 향하는 나와 타인, 그리고 인간의 동질성을 깨달을 수 있다[23]. 운동 기능적 차원에서 논의된 걷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걷기는 “내부시각(内部視覺/始覺)의 작동”, 또는 “땀(몸+마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걷기는 “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걷기는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걷기는 무엇보다 채움에 앞선 “비움”의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걷기는 “동행”이라는 것이다. 걷기는 자신이 매순간 불완전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면서 소유욕과 집착 등의 쓸데없는 것들을 비우고 겸손과 침묵 등의 동행의 감각 또는 마음을 갖게 한다[22]. Schnabel(2011)은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느낌을 가진다는 점, 지금이라는 유일한 순간에 온전하게 주의를 모으고 집중한다는 점에서 걷기를 인간의 진정한 휴식의 방식으로 간주했다[21][22].

또한 성장 중이고 불완전한 심리적 상태를 가진 유범 청소년들에게 걷기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한 외국의 사례인 프랑스의 쇠이유에서도 재범율은 15%로 떨어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23].

III. 연구방법

1. 내용분석 이해

내용분석은 처음에는 양적 신문분석이라는 다소 협소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림, 문서, 미디어, 대화, 상징 등의 모든 종류의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발전해왔다. 특정 이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변화와 더불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문자 매체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청각적, 시각적 매체의 등장으로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내용 분석은 더욱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24].

내용분석이라는 용어는 194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25]. 하지만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17세기 말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교회에서는 비종교적인 인쇄물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으며, 출판물의 발달로 인해 비종교적인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기사에서 종교적인 언어들에 다루었다[26].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부터 타당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체계적 과정으로 정의된다[26][27].

내용분석의 다양한 정의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를 기술하였는데, “첫째,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둘째, 표면적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의 심층 내용을 추론해내고자 하며, 셋째, 이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내용분석의 질은 연구자가 텍스트를 처리하고 그로부터 추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27][28].

질적 내용분석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방법적 이론화를 시도한 Krippendorff(2004)가 개발한 내용분석의 과정은 내용분석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내용분석을 크게 다음과 같이 단위화(Unitizing), 표본추출(Sampling), 기록과 코딩(Recording/Coding), 간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Narrating)의 6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많은 양적/질적 자료의 분석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6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방통행 과정이 아닌, 반복과 회귀가 가능한 순환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양과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24].

또한 그는 “내용분석이란 연구 자료로부터 반복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연구기법”이라고 했다. 여기서의 연구 자료는 문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 그림, 지도, 표지판, 상징적인 기호, 소리, 의사소통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자료라는 매개물에 담긴 내용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절차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25]. 이에 본 연구는 걷는 교정프로그램인 “길위학교” 동행자의 소감문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보호청소년에게 건기 교정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및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과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 유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걷는 프로그램인 ‘길위학교’ 동행자 소감문(수기) 46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 하였다.

표 1. 길위학교 프로그램 내용

연도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행자 소감문
2014	9박 10일	7편
2015	11박 12일	12편
2016	11박 12일	9편
2017	9박 10일	9편
2018	9박 10일	9편
계	평균 9박 10일	46편

소감문 46편을 반복하여 읽어 의미단위를 찾고 하위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다시 유목화하여 상위구성요소를 도출 한 결과 131개의 의미단위, 7개의 하위구성요소,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구성요소는 “건기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 “보호 청소년을 이해”, “동행자 시선의 긍정적 변화”, “프로그램 효과성과 동행자의 중요성”이었다.

3. 분석대상

프로그램 동행자의 구성은 대학교 전공은 사회복지, 교육, 역사, 상담, 철학 등이지만 소지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자격 등이며, 하는 주 업무는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 실무자들이다.

표 2. 길위학교 참가 동행자 현황

순번	이름	성별	나이	참가 횟수	특징
1	김○세	남	45	3	사회복지전공
2	김○섭	남	50	5	역사전공
3	김○현	남	32	3	사회복지전공
4	이○혁	남	37	3	상담전공

5	연○홍	남	35	4	교육학전공
6	마○경	남	40	4	교육학전공
7	이○석	남	62	5	철학전공
8	임○옥	남	36	2	역사전공
9	정○혁	남	30	3	사회복지전공
10	탁○우	남	27	2	사회복지전공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incoln과 Guba(1985)이 제시한 4가지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 적합성 등 평가기준을 준수하였다. 또한 연구 윤리를 지키기 위해 동행자들에게 연구 발표시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정보제공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소감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표현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료 해석의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는 소감문의 의미에 대해 판단중지를 하였다. 일관성을 위해 소감문 자료를 연구자가 분석한 후 공주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지도하에 대학원 박사과정 3명과 함께 2달간 대면 연구와 지속적인 메일을 주고받으며 면밀히 내용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후 질적연구전문가 1인에게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였으며,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길위학교라는 걷는 교정프로그램 경험과 소감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여 보호 청소년들의 교정프로그램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 목적과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단기청소년쉼터 상담사의 업무 경험’, ‘Q방법론을 활용한 지역사회복지 인식의 유형화’ 연구에도 참여한 경험과 대학원에서 질적연구 과목을 2학기에 걸쳐 공부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보호 청소년을 이해

■ 프로그램 참가자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해

“위기청소년이라는 인식표를 그들에게 붙여놓고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모조리 단죄하고 낙인 찍어 문제의 원인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나2014년 마○경

“아이들은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기대를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에게 포기를 이야기하고 욕을 먹도록 강요했던 어른의 한 사람으로 미안했다.” 2014년 마○경

“내가 겪었던 그 시절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번에 함께 걷는 소년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이 대화를 하며 느껴졌다.” 2017년 박○옥

참가 청소년을 처음 접하는 동행자들은 “위기청소년”이라는 낙인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걷는 과정 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청소년 자신의 고민과 처지 한탄.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또한 동행자들은 라포형성 및 프로그램 진행 부담감을 덜게 되었다고 본다.

평균 9박10일 동안 숙식과 어려움을 같이한 동지애 같은 것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게 했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참가 청소년들 대부분 양육자가 계모·부, 또는 이혼가정인데 같은 비행 청소년일지라도 계모·부 일 때 긴장감이 강하고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17]. 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걷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처음엔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동행자 시선의 긍정적 변화

■ 청소년의 행동과 마음의 변화 인지

“발가락에 이상을 호소하는 ○이, 걷기에 자신없어하는 ○호, 혼자치고 나가는 ○민이까지 우리가 지리산둘레길 240km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들지는 않았다” 2016년 이○혁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묵묵히 걸으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또 잔뜩 자신 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주변을 살폈다 이내 편안한 휴식이나 내리막이 나올 때면

아이들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욕하면서 올라왔는데도 말이다 내리막길에 즐거워하고, 그늘에 감사하고 중략 민박집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랑 된장국에 감격하며 그릇을 비우기도 했다 2015년 연○홍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자신감도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엔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고 순간순간을 마치못해 걷는 느낌이었던 차차 지나며 걸으면서 경치도 살펴보고 곤충이나 동물들을 보면 신기해하는 등 행동의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2018년 김○현

참가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기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신체적 이상, 표정, 돌발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하였다. 이러한 표출을 접한 동행자들은 긴 거리를 낙오자 없이 마칠 거라 확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하다”라는 표현과 쳐다 보지도 않았던 된장국을 맛있게 감사히 먹었으며, 길위에서 만나는 작은 곤충이나 동물과 자연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음을 동행자들은 보게 되었다.

하지영(2011)은 걷기의 효과 중 기분이 좋아지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였다[23]. 이처럼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걷는 과정에서 억압된 무언가로부터 해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평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과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자기의 강점을 살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동행자들은 보았고 느끼게 되었다.

■ 동행자의 변화

“길위학교를 같이 걸은 아이들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다. 이 지점이 동행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어지는 지점이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게 잘하는 짓인가?” 2017년 임○옥

“내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016년 김○현

“동행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지만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열정도 배우게 되었고 이해심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2016년 정○혁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글의 처음부분은 두려움과 걱정이 산재해 있다가 중반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동행자들은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참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선입견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우범·비행·보호 청소년 등으로 불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행자들 마음속엔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했었다. 또한 참가자와 상호작용하는 동행자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임무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후반부터 변화하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동행자들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힘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상호간 협력과 배려,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20].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에서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배울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행자 스스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걷기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

■ 걷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특별한 행동 없이 단순히 계속하여 걷기만 하는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지루하고 답답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점차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모습 주변에 식물을 내려치고, 등산스틱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18년 조○완

“사실 여행초반에 이 여행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았다, “그거 걷고 나면 애들이 진짜 달라져(반성해?)” 2017년 임○옥

프로그램 초반부에는 효과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품었으나 중후반부로 들면서 청소년들의 언행과 마음의 변화를 읽게 되었고 동행자들의 마음도 변화하는 것을 느꼈으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점차 줄어들었다. 9박 10일 동안 전자기기의 차단과 오로지 걷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의구심은 생겼을 것이다. 또한 걷기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보다 함께 걷는 동행자들은 효과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

고 의구심은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 사례 ‘쇠이유’에서는 기간은 한달 이상, 거리는 800km 이상을 걷는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 청소년들이지만 엄연히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르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이지만 단기간에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그 효과를 바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정프로그램의 실시결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비행을 유발하는 요소가 줄거나 바람직하고 옳다는 행동을 증가 시키는 것 [14]인데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자체가 의구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

“이 아이들과 함께 230km, 를 큰사고 없이 걸을 수 있을까? 2014년 임○옥

“청소년들과 걸을 당시가 거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라포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2017년 탁○우

“길위학교 동행자로서, 참여청소년과 주과수를 맞추는 작업들이 쉽지 않다 주과수를 맞추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 작업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2018년 김○섭

비행청소년의 비행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청소년에 비해 동조성이나 비행성에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러한 청소년들과 함께 라포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참가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9박10일 동안 230km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여정임은 분명하다. 또한 보호 청소년과 함께 걷는 것 또한 동행자로서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숙식을 함께 해결한다고 하지만 기상과 몸 상태, 그리고 길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계획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닐 것이며, 처음 만나는 청소년들과 목표를 동일하게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한층 더 증가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프로그램 효과성과 동행자의 중요성

■ 프로그램 효과성

“어쩌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회 속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로 이곳에 함께 하게 된 친구들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뜨거운 인간애와 서로에 대한 배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도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는 우리가 억지로 가르치지도 강요하지도 않은 로드스쿨이라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2014년 이○혁

“참가한 청소년이 작은 변화에 도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난 이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이유는 성장하는 청소년들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김○세

프랑스 쇠이유라는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이 긍정적 효과를 본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의 재범율은 15%로 떨어졌으며, 인근 국가인 폴란드 등에 전파되는 성과도 있다고 한다[23].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산악인 업종길과 함께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 프로그램이 있다[31]. 남자 “길위학교”는 쇠이유처럼 유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참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작은 긍정적 변화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인가는 미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행자의 중요성

“함께 걸어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참여자들이 잘 수행해 낼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행자로서의 신뢰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힘들어 하며 수 만 번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옆에서 버텨주는 인내심이 동행자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 이었다” 2016년 이○혁

“동행자의 이런 비자발적이고 비극적인 사고와 태도가 아이들에게 과연 득이 되는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전

해 줄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불편함이 일정 중의 신체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2017년 마○경

“첫 날에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 걸었을 거예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감사해요.”라는 참가자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2018년 김○현

동행자는 길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청소년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행자 이자 동시에 길위에서 함께 걷는 동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리더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적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차가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별개의 리더 행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똑같은 구성원일지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32][33]. 즉 사례별·상황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임기응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위학교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핵심 3개를 뽑는다면 첫째는 참가청소년, 두 번째는 길, 세 번째는 동행자일 것이다. 동행자의 역량에 따라 참가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물론 참가 청소년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과 짧은 여정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함을 기다려 주는 동행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프로그램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비행이나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소년범에 의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성인과 다르게 재범예방과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호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11.3%가 나왔으며,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 결과 2014년부터 대전자정법원과 대전나눔의

집에서 프랑스의 “쇠이유” 교정프로그램을 모방하여 한국형 쇠이유 일명 “길위학교”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견고 성찰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가 동행자라고 한다. 이 동행자들의 참여 경험을 글로 표현한 수기 46편을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견기 교정프로그램의 의의와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청소년의 이해이다. 걷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가정환경과 경험을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동행자 시선의 긍정적 변화이다. 동행자들은 단순히 걷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걷는 길위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보고 있게 되었다.

셋째, 견기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다. 동행자들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교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더군다나 프랑스라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경험을 모방하여 만들었기에 의구심은 더 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프로그램 효과성과 동행자의 중요성이다. 걷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평소 겪어보지 못한 체력적·정신적 한계에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동행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분석결과와 같이 견기 교정프로그램은 동행자 입장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행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자기 반성과 미래계획을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또한 동행자들은 9박10일간 걷는다고 변화 할 것인가? 자기의 죄를 반성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프로그램 막바지에는 청소년에 거는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효과성과 참가 청소년들의 변화 정도를 계량적 측정이나 변화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어 아쉽다.

견기 교정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 동행자 양성이다. 교정 사회복지적 접근, 상담능력, 리더십 등 견기 교정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자질을 갖춘 동행자 확보를 위해 전문 동행자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 동행자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 기간과 횟수와 참가인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평균 년1회 9박10일이며 참가 청소년은 10명 남짓이다. 쇠이유 참가 청소년들의 재범률 저하처럼 객관적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적 횟수와 참가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다양한 길 확보이다. 즉 참여 청소년의 체력을 고려하여 난이도와 지역, 기간 등 다양한 경로 개발과 확보이다. 참가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길을 적용하려면 다양한 길 확보도 필요해 보인다.

추후 견기 교정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공헌을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행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하였지만 향후 연구는 참가청소년 및 부모 등 폭넓은 대상과 영역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확장된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15, 2017.
- [2]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청소년비행론(제2판)*, 서울:청목, 2011.
- [3] 석청호, “경찰관의 비행청소년 처리태도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학회보*, 제5호, pp.183-207, 2005.
- [4] 이하섭, 조현빈,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85-297, 2011.
- [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410#0ARs>, 2018.08.25.
- [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4671>, 2019.01.11.
- [7]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pp.241-255, 2008.
- [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 articleView&idxno=139199, 2019.01.24.
- [9] 이복실, *교정프로그램 참여와 가족기능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태도변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21, 2005.
- [10] 남미애, “청소년비행의 경향과 교정복지의 방향,” *사회과학논문집*, 제22권, 제2호, p.157, 2004.
- [11]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545>, 2016.06.15.
- [12]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대전가정법원과 함께 걷는 지리산 둘레길700리 2015년 ‘길위학교’ 결과보고서*, pp.4-5, 2015.
- [13] <https://dic.daum.net>, 2018.10.01.
- [14] 김근식, *지역사회내 교정처우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5]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대전가정법원 남자청소년들과 함께 하는2017년 길위학교 결과보고서*, pp.6-7, 2017.
- [16] 안윤숙,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2011.
- [17] 김경화, “소년 범죄자의 교정처우,” *교정복지연구*, 제40권, pp.1-47, 2016.
- [18] <https://ko.wikipedia.org>, 2018.12.01.
- [19] 최영운, *걷기 참여 형태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강릉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20] A. P. Boers, *걸어서 길이 되는 곳, 산티아고(The way is made by walking)*, 유지훈 역, 경기:살림 (원전은 2007년에 출판), 2008.
- [21] U. Schnabel, *휴식*, 김희상 역, 서울: 걷는나무(원전은 2010년에 출판), 2011.
- [22] 하지영, *걷기의 배움학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23] 임수현, *쇠이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 효형출판, Bernard Ollivier(지은이) 임수현 역, 2014.
- [24]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pp.127-155, 2016.
- [25] D. Waples and B. Berelson, *What the voters were told: An essay in content analysis (mimeographed)*, Graduate Library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IL. 1941.
- [26] T. Anderson, L. Rourke, D. R. Garrison, and W. Archer, “Assessing teaching presence in a computer conference context,”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Vol.5, No.2, pp.1-17, 2001.
- [27] 박양주, 우영희,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Vol.28, No.2, pp.263-287, 2012.
- [28] 우영희, 박양주, “교육공학연구에서의 내용분석 적용 동향: 분석 내용 및 모델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Vol.8, No.2, pp.131-155, 2012.
- [29] 정극주, 최훈서, “집단원 구성 및 개인 기여의 도 구성이 집단에서 고정관념 표적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Vol.21, No.2, pp.107-121, 2007.
- [30] 안권순, “비행청소년의 비행 경험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6권, 제4호, pp.55-65, 2008.
- [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1_0000536003, 2019.01.23.
- [32] P. Hersey and K. H. Blanchard, “Life cycle theory of leadership,” *Training and Developmental Journal*, Vol.23, No.5, pp.26-34, 1969.
- [33] 서정찬, *청소년지도사의 리더십과 집단응집력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저 자 소 개

김 원 세 (Won-Se Kim)

정희원



• 2019년 3월 현재 : 충남금산지역 자활센터 센터장,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